

# 남은 자들이 받을 축복을 선포한 스바냐

## -복음으로 여는 스바냐-

스바냐 3:17, 로마서 1:18-32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237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말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성경적 진도운동의 시스템이 모델로 세워져서 전 세계에 RUTC를 세우며 전 세계에 서밋, 치유, 237의 빛을, 하나님의 사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축복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고 하셨다. 그것을 우주만물에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은 깊이 생각하는데, 한 번도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족보의 모든 조상은 원숭이가 되어야 한다. 우주와 인생, 내 주변, 이 세상을 보면 절대자가 없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마귀에게 끌려 다니게 되는 것이다. 한 번만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흑암이 꺾이고 새로운 빛과 길이 열릴 텐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야지 전도가 된다. 왜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다 아는데도 세상의 노예, 종, 포로로 끌려 다닌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다. 오직이 안 되어서 그렇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오직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된다. 다른 중요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한 생명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결단이 서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오직이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체질과 인성과 모든 것들이 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내고 오직 되었을지라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도록 도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로마서 1장, 2장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된 죄 때문인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 여러분이 복 받은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했던 것, 여러분이 잘했던 것 때문에 온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조금만 해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후대와 교회에 계속해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다. 특별히 할 것이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리라’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복 받을 존재로 변화시켜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0

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한다.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만큼 받는 것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 죄를 발견하게 된다. 죄를 발견해야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3장 10절은 원죄문제해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원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우리는 진도자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불신앙을 꺾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 중 은혜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말씀을 보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며 복음이다. 우리는 값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스바냐시대에도 로마시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서 3장에서 그 남은 자들이 누릴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나 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쾌락중심, 세상중심인 Nobody, NoWay, NoTime, Nowhere, NoAnswer의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남은 자들은 노(‘No’)를 에브리(‘Every’)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 1. 첫 번째로 스바냐의 시대의 문제들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대적인 배경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는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한 왕이었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의로운 왕 중 한 사람이다.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을 했던 인물이 스바냐였다. 이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이다. 그러면서 스바냐는 자신의 조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바랴의 증손이요 그 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자신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 즉 왕족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왕족이었던 스바냐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다. 방치해두었던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청소를 하게 이끈 사람이 스바냐였다고 어떤 학자들은 말한다. 이 역할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기를 축원드린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 후대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14대왕 므낫세 왕과 15대왕 아몬 왕은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16대왕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의 남유다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과 사회적인 악들이 팽배했던 시대였다. 그 때에 스바냐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2)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의 악한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스바냐서 서두에서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장 2절에서 3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경고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

①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바알과 그마림'이라는 우상을 섬겼다. 바알은 아세라신과 함께 숭배한 태양신이었다.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는 신이었다. 바알의 이름의 뜻은 '주인'이었다. 남유다 백성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던 것이다. '그마림'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양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단어이다.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 21세기에서는 그 우상이 '나'이다.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한다. 나의 삶을 찾아야 한다.

② 그들은 별점을 치는 '점성술'을 믿었다. 1장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점성술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그들은 종교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 1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도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말감'이란 모압과 암몬지손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말곰'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그들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과학, 돈, 직장, 쾌락, 지식, 권력, 이념, 결국 나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 기준에서 부쉬야 한다.

④ 과거에는 여호와를 믿었지만 배반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⑤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다. 스바냐 1장 6절을 보겠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지난 설교에 질문해보라고 말씀드렸다. 여러분들은 일, 사업, 결혼도 하나님께 질문해보라.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 교역자들에게 보고해 보라. 답이 안 온다면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보라. 하나님이 응답, 해답을 주신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이렇게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18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결국 남유다 민족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수백 년 동안 속국, 노예,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

**2.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알려주신 남은 자들이 받을 응답과 축복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받을 응답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남은 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남은 자는 종교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당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언약의 흐름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은 자들은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참된 종교개혁자들이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응답과 축복들은 무엇일까? 스바냐 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다.

(1) 스바냐 3장 15절을 보면 남은 자는 여호와로부터 형벌을 제거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형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다.

(2) 스바냐 3장 15절 중간에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은 남은 자들을 위해 이미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3) 3장 15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With, Immanuel, Oneness)의 축복이다.

(4) 3장 15절에 이어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 이라'라고 약속해 주셨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과 다양한 공포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한 남은 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시기 바란다.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5) 3장 17절에 보면 이정도가 아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잘하고 못 하고 상관없이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6) 3장 19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다시 확인해 주실 뿐 아니라,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라고 축복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셨다. 3장 19절에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칭찬받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참사랑RUTC이다. 3장 20절은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스바냐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남은 자' 램넌트들이 받을 응답과 축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현장에만 있으면 이 '남은 자'가 누릴 100년, 천년의 응답과 축복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스바냐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이 붙잡을 소중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구원하시고 결국은 전 세계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영원한 비전은 불신자상태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237 나라 민족들에게 승리, 해방, 자유뿐만 아니라 칭찬과 명성까지 안겨다 주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24시간 무시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남은 자이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해도 스바냐처럼 답, 응답,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연습, 실천이다. 계속하는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한 주간은 유대민족들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나의 불신자 상태를 다시 한 번 적어보기 바란다. 인정만 해도 거듭나게 될 것이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12가지 불신자상태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가정, 기문, 현장을 치유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램넌트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몰라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